

근현대사 마이너 갤러리

마이너 갤러리 소개 | 개념글(초개념글) | 마이너 갤러리 검색 | 즐겨찾기 | 연관 갤러리(3/2) | 갤러리 주소복사 | 이용안내 | 차단설정

최근 방문 갤러리 근현대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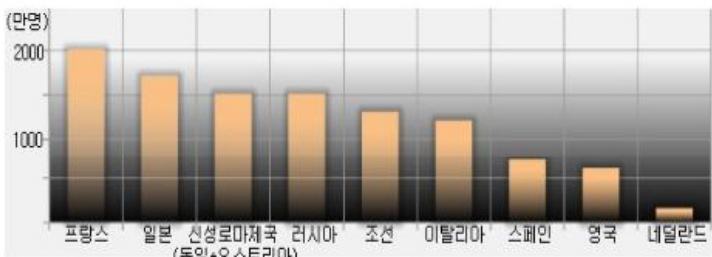
제목 [근꺈 역사지식]오합지졸의 도망군대 조선군.jpg 2018-07-27

글쓴이 ○ ○ | 조회 385 | 댓글 2

● 조선은 걸모습만 강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절대 약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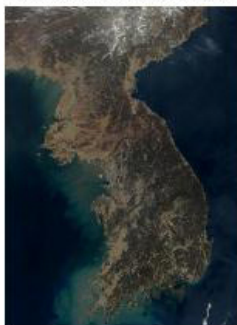
'인구=국력'이던 전근대 시대에
18세기 후반 세계 7~8번째의 인구 대국이던 조선은



▲ 17세기 당시 세계 각국의 인구

70%가 넘는 산지와 반도국이라는
천혜의 지리적 이점까지 갖춰

어떤 강대국이라도 쉽게 공략할 수가 없는
난공불락의 위치에 있었다.



또 겨울의 추위는 매섭고,
같은 힘해서

적의 보급만 제대로 공략해도
순쉽게 외침을 막아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생각이었다.

잘못된 사상과 사회적 모순은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분산시켰으며

'세상에 이보다 더 나약한 군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명악한 모습만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런데도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500여년을 버틴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오죽했으면 임진왜란이 끝나자
유성룡은 자신의 저서에 이런 글을 썼다.



유성룡

"이러고도 우리가 오늘날 있는 것은
오직 하늘이 도운 까닭이다."

● 왜 조선군은 무기가 없는가?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지원군이 조선에 도착했다.

사령관 이여송의 첫 마디는
경악 그 자체였다.



이여송

"아니, 조선군은 무기가 없는가?"

당시 조선 군사들이 들고 있던 것은
죽창과 몽둥이, 농기구였다.

제대로 된 군복조차
거의 입고 입지 못했다.



그도 그럴것이
조선은 무기며 군복이며

동원되는 군졸들이
모두 각자 알아서 준비하는 처지였다.

하지만 그런 것은 비쌌다.

전시에 노비와 양민들이
그런걸 장만할 능력이 어디있었는가?

[> 더 보기](#)

칼을 장만할 방법이 없어서
집안의 호미를 녹여 만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칼은 몽둥이랑 부딪쳐도
부러지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런 칼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었다.

둔탁한 칼도 변변히 없어서 몽둥이를 들고
참전했던게 당시 조선의 군사들이었다.

지휘관 몇 명 빼놓고는
갑옷을 입지도 못했다.



사극에서 임진왜란 때
군졸들이 허스름한 군복을 입고 나오면,



원래 조선군은 병졸까지도 모두 갑옷을 입었다고
혈압 폭발하는 이들도 있는데..



하지만 그런 사극의 군졸 군복보다
훨씬 더 못입고 싸웠던게 당시 조선의 군사들이었다.

생각해보라.

조선은 절대로 군인에게
공짜로 군복을 지급하던 나라가 아니었다.

돈 있으면 화려한 갑옷을 입고
청룡원월도를 휘두른듯 누가 말리겠는가!



하지만 당시 조선은
임금의 절대 의사가 지배하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비였고

돈 있는 양반들은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았으니

당시 조선군이 입고 지참했을
군복과 무기의 수준은 열악하기 그지 없었다.



▲이들이 과연 갑옷을 입고, 제대로 된 무기를 들고 싸웠을까?

[> 더 보기](#)

혹시 임진왜란 배경의 그림을 보고
당시 조선 병사는 모두 무장을 했구나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그림들은 후대에 그려진 것들이다.
또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기도 힘들다.



국가에서는 병사들이
모두 저런 식으로 무장을 하기 바랐지만,

당시 현장의 기록을 보면
조선군의 대부분은

무장을 하지 못한
허스름한 노비와 농민들이었던 것이다.

● 왜 조선군은 군인이 없는가?

임진왜란이 터지자 조정에서는
긴급히 한양에 군대를 모았지만

모두 도망쳐 버리고,
동원 가능한 숫자는 겨우 300명 정도였다.

제대로 작전을 아는 장수도
아무도 없었다.

선조는 급히 이덕형을
도체찰사(최고사령관직)로 임명했다.



이에 이덕형은 상소를 올리는데
내용이 몹시 차도했다.

대중이 쉽게 공감했다.



이덕형

"지금 조선군에게
부족한 것은 장수가 아닙니다."



이덕형

"지휘관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걱정입니다."



이덕형

"도원수가 전진 명령을 내리면
순찰사는 후퇴 명령을 내리고 있는게, 작금의 조선군입니다."



이덕형

"그런데 저를 이 사이에 넣어
또 명령을 내리게 한다면,"



이덕형

"그야말로 더 엇갈리고
뒤섞일게 아니옵니까?"



이덕형

"우리 군은 지금 병사, 수사, 조방장, 수령까지
모두 별개의 직위로 별개의 군사를 가지고 있어서.."



이덕형

"공문만 여러군데서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덕형만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던
유일한 장수였던 것이다.

당시 조선군의 상황을 보면
이런 코미디도 없었다.

그야말로 문서로만
전쟁을 치르는 꼴이었으니

군사조직은 서류상으로
연대급의 속오군 2500명, 대대급의 사 500명,

중대급의 초관 99명, 소대급의 기총 33명,
분대급의 대총 11명 으로 나뉘져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편제일뿐
어떤 부대는 초관이 있지만 기총이 없고

어떤 부대는
군사가 한명도 없는 곳도 있었다.



군, 군단, 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 등
편제는 있지만

병력은 한 명도 없는 곳이 수도룩한 반면
지휘관들만 넘쳐났던 것이다.

오늘날 군단장 이상급인
도원수가

휘하의 민병 100여명을
가지고 있었던게 당시의 상황이었다.



16세 ~ 60세까지 군역 대상의 남자 인구가
총 200여만 명을 헤아리던 조선시대였고,

서류상으로도 상시 대기 가능한 군인수를
기병 2만 3천, 보병 1만 6천으로 지정하고 있었지만

임란 다음 해에
왕이 피난살이를 하다 돌아왔는데도

당시 한양을 지키던 군사의 수는
총 300명 밖에 되지 않았다.



그나마 이들 300명은 조정에서 밥을 먹여준다니
그걸 먹으려고 자원한 숫자였다.

● 조선군은 왜 작전이 없는가?

조선시대 상시 소속된 군사라고 해봐야
평상시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전쟁 전에 그들은

대궐 등지에서 문지기를 서고

아니면 성 쌓는
잡역 등을 하면서 살았던 이들이다.

따로 전투 훈련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다.



장수들도 마찬가지였다.

평소 그들이 공부하던 병서라고 해봤자
과거의 전쟁 기록사가 주류이고,

군대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우리나라 지형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등의

실용적인 병법서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다가 18세기 후반이 되면
이른바 '지형지물을 이용한 작전술' 이라는게 나오는데,

당시 무관이었던 송규빈이 제안하던
내용은 대략 이러했다.



송규빈

"숨이불을 적 공격로에 펼쳐서 작탄을 막자"



송규빈

"적 침투로에 나무를 심자"



송규빈

"겨울이면 얼음으로 장벽을 치자"

황당하기 짝이 없지만
당시 조선의 실상이 그러했다.

전쟁시 적의 침공로가 될까 두려워
애써 좁은 길을 고수하고

길을 닦지 않았다는 얘기는
절대로 허구가 아니었다.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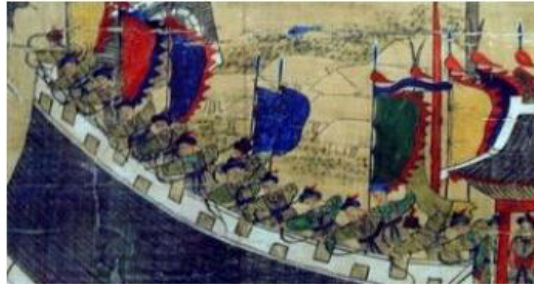
정확도 하나도 아니었다. [▶ 링크](#)

당시 조선의 성곽도
단순히 벽을 쌓는데만 치우쳐서



병사들은 몸을 숨기고 사격을 해야 할 공간이
너무도 좁고 낮아서

엄폐가 되지 않아
상당한 데미지를 입어야만 했었다.



전투능력도 그랬다,
일본군은 일찌감치

3단 연속사격을 익혀서
쉽없이 공격이 가능했지만,
<embed src="//www.youtube-nocookie.com/v/PWGIxYGyRM?version=3&hl=en_US&:height=240" allowscriptaccess="never" allowfullscreen="true" title="동영상" enablehtmlaccess="false" allowhtmlpopupwindow="false"></embed>

조선군은 한꺼번에 몽땅 쏘고,
그 다음에 적이 돌격해오면

모두 도주해버리는 것이
기본이었다.



그만큼 일본은
오랜 전쟁으로 단련이 되어 있었고

조선은 200년 넘게 평화 속에서만 살다보니
너무도 전쟁을 몰랐던 것이다.

● 조선군은 무보수 군인들이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들은
병사, 수사, 첨사, 권관 등 직책이 수두룩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들에 대한 녹봉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푼금 한 푼도 없이
이들은 병졸에게 양식을 걸어서 먹었다.

그리고 이런 전시의 시스템은
조선시대 내내 고쳐지지 않았다.



당시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은
군역에 나가서 군포를 납부하고

대신 병역의 의무를
피했는데..

조선시대 장수들은
오히려 이런 군포 납부를 더 반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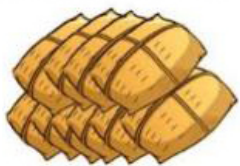
이렇게라도 해야
자신들은 녹봉을 챙길 수 있었고,

군대가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조선시대에
국가가 백성을 동원해서

유일하게 식량을 지급했던 경우가
전쟁이 발발할 때였는데

이른바 군량미라고 했다.



하지만 이것도
사정은 좋지 못했다.

여기에 명나라 군대까지 가세하여
조선군의 상태는 더욱 곤궁해졌다.

명나라 군대가
1만명이 내려왔을 때

아무리 굶어도
이들을 먹일 양곡은 5일분 밖에 안됐고



조선군들은 물에 젖은 썩은 쌀 약간과
좁쌀 몇 줌을 먹고 버텼으니..

허기진 조선군이 군마를 잡아먹고
명나라군이 민가를 약탈했던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른다.

● 조선군은 도망군이었다.

명나라 사령관 이여송은
조선군의 빈약한 상태를 보고

직접 나서기 보다는
배후에서 파수(경비)를 서게 했다.



하지만 그렇게 파수를 세워놓으면
도망쳐 버리기 일쑤였다.

이때 이여송은 이렇게 탄식했다.



이여송

"조선군은 도망군이다"

절전이 벌어지면 절반은 도망쳐 버리던게
당시의 조선군이었다.

1597년 전쟁 막바지에 있었던 울산성 전투에서
명나라군 4만, 조선군 1만의 연합군이 참전했는데

이때 조선군은 권율 장군의 지휘 하에
용맹하게 싸워

300명이 전사하고
1천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그런데 도망병은 5천이나 됐다.
하지만 명나라 군인들은 오히려 놀랐다.



명군

"와! 절반씩이나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싸웠네."

추운 겨울에 손발이 얼어 터지고
식량도 없고 무기도 없었는데

오히려 그런 상태에서 절반은 끝까지 싸웠다고
놀라던게 당시의 명나라 군인들이었다.

● 한국 역사상 4대 패전 : 용인전투의 자멸

임진왜란이 발발한 지, 두 달이 채 안 된
1592년 6월 5일의 일이었다.

용인 일대에는
삼남지방(전라,경상,충청)에서 징집한

5만 대군이 수도 한양을 탈환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모였다. (일본측 기록은 10만명)

이에 맞선 일본군은 총 1,600여명이 전부였다.
숫적에서 31:1로 조선군이 완전 무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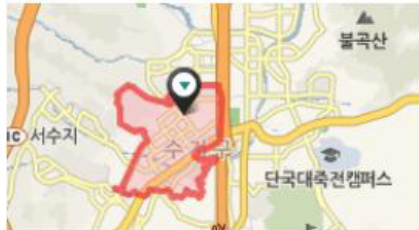


하지만 이들은 모두 긴급 소집되어
어쩔 수 없이 끌려온, 노비와 농민들에 불과했다.

그렇더라도 새까맣게 물려오는
수만 대군의 조선군의 기세에 놀라

왜군은 도망을 친 뒤 기습작전을 펼쳤다.
그리고 결과는 참담했다.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일대에서
조선 선봉군이 박살난 뒤,



다음 날에는 수원 광고산의 부대가
급습을 당해 궤멸을 당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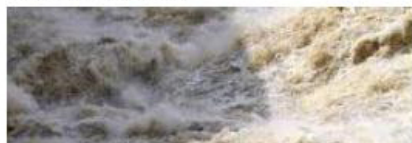
지휘관들은 앞서서 도망치고
수많은 병사들이

서로 도망치다가 깔려 죽고
날뎀터지에 떨어져 죽었다.

'선조수정실록'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다.



"그 형세가 마치 산이 무너지고
물이 터지는듯 했다."





당시 조선군의 패배는
정신적, 심리적 측면이 강했다.

그리고 애초에 끌려온 농민과 노비들이기에
이들에게 '군의 사기'라는게 있을 수가 없었다.



사태가 위험하다 싶으면
언제든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던 이들 조선군은

일본군 조총 소리에 놀라서
누군가 달아나면, 붓물 터지듯 모두 도망을 쳤고



그러다가 서로 밟혀서 죽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던 것이다.

물론 무능한
지휘관들도 문제였다.

지휘관 역시 겁먹고 도망치는 데에는
일반 병사를 못지 않았던게 당시의 모습이었다.

● 한국 역사상 4대 패전 : 쌍령전투의 악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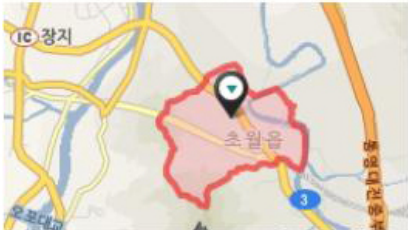
장수는 녹봉이 없고, 군인은 무기가 없고,
군대는 체계와 전술이 없었던

당시 조선군의 무능력함은
어찌보면 구조적인 병폐였다.

그리고 그런 모순들이
모두 응축되어서

비참한 결과로 일단락 지어졌던게
바로 병자호란 당시 쌍령전투였다.

1637년 1월 3일,
오늘날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일대에서



관군 동원령에 따라 차출된 4만 명의 조선군이
청나라(당시는 후금) 기병 300명과 마주쳤다.

당시 조선군에는
다수의 조총부대가 포함되어 있었다.





133대 1,
승패는 누가 봐도 뻔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조선군은
그만 대패하고 만다.

당시 조선군은 4만명이라고 해봤자
역시나 군사 훈련 한 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강제로 끌려나온 노비와 양민들이었다.
애초에 싸울 의지가 전혀 없었다.



선두에 선 조총병이
대충 몇 발 쏘다가

청나라 기병대가 돌격 해오면
삼시간에 대오가 무너지기 일쑤였다.



그리고 조선군은 경사진 곳에서
서로 도망치려 물리는 바람에

대부분은 아군에 깔려
밟혀 죽었던 것이다.

인조 때 니만갑이 쓴 '병자남한일기'에 보면
당시의 처참함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니만갑

"도망가다 계곡에 사람이 쓰러져서 쌓이면서
사람들이 깔려 죽었는데.."



니만갑

"그 시체가 언덕처럼 쌓였다."

그런 현대의 압사 사건으로
경상 좌병사 허완도 깔려 죽었다.

남급이 쓴 '병자일기'에서는 더 구체적이다.



남급

"풀어진 병사들은
목책에 도달했으나.."



남급

"목책을 넘지 못하고 넘어지면
그 뒤로 계속 시체가 쌓였고,"



남급

"또 목책을 넘더라도
목책 밖이 험준해 추락해서 죽었다."

그런가하면 다른 진영에서는
화약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그만 폭발이 일어나서
경상 우병사 민영도 현장에서 즉사하기도 했다.



그렇게 조선군은
제대로 훈련조차 받지 못한 오합지졸의 병사들과

기본적인 전술도 모르는 지휘관의 합작으로,
또 다시 역사상 초유의 대패를 당하고 만 것이다.

그것도 용인전투의 치욕이 있는지 45년만에
그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판박이처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다.

● 이양선의 외국인을 보고 혼비백산한 조선군들

왜란, 호란 이후로도
조선 군대의 구조적인 병폐는 여전했다.

그 사이에 다른 외적들이 침공하지 않았던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18세기 후반부터
조선 해안가에는

정체불명의 서양선박, 이양선이 출몰하면서
조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 잦았는데,





1795년(정조 19년) 8월 1일
황해도 관찰사가

황해도 장면에 나타난 이양선 사건을 보고했다.
내용은 이랬다.

국적을 알 수 없는 배 한 척이 바람에 밀려와
홀연히 황해도 오차진 앞에 정박했다.



그러자 관아에서는 군사들을 이끌고
급히 포구로 달려갔다.

배 안에는 새나운 오랑캐들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코가 높고 눈이 파랬다.

그런데 이들의 차림새가
하도 괴이하고 수상 짝어서

공 수령은 군사들에게
위엄을 보이도록 하였다.



수령

"경계태세를 갖춰라."

그러자 조선 병사들이 일제히 활을 당기고
총을 겨누며 위협했다.



그랬는데 오랑캐들은 화를 내면서
일제히 상륙한 뒤

돌을 던지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저항하는게 아닌가!



분위기가 공포스럽게 되자
조선군은 겁을 먹고 너도 나도 달아나기 시작했는데

이때 가지고 있던 활과 칼, 총 등은
모두 포구에 내다 버리고 뛰었다.

전체목록

개념글

삭제

수정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주간디시] 부산에서 서울까지	운영자	2018/08/24		
공지	조센징들의 수탈을 위한 근대화론에 대해	ㅇㅇ (211.232)	2016.11.30	226	29
>	[근꺽 역사지식]오합지졸의 도망군대 조선군.jpg [2]	ㅇㅇ (218.39)	2018.07.24	385	30
공지	조센징 욕일기 발광이 역사가 몇년안된 급조 광기라는 증거 [6]	ㅇㅇ (180.69)	2018.07.08	764	68
공지	신고 게시판 + 금지어 목록	맥러빈	2018.04.25	6188	139
91987	한국에서는 인디오들을 착하고 순수한 존재로만 치부하는데 꼭 그런건 아님 [1]	ㅇㅇ (211.46)	2018.08.26	9	0
91986	북센징 아무리 교화시켜도 사람못만들듯이	ㅇㅇ (70.89)	2018.08.26	8	0
91985	대항해시대는 한국에서 가르치는것처럼 오직 부의 추구에 대한 탐욕이 아님	ㅇㅇ (211.46)	2018.08.26	8	0
91984	한국은 말레이시아못지 않게 포르투갈같은 유럽국가들도 무시한다. [1]	ㅇㅇ (211.46)	2018.08.26	31	4
91983	말레이시아를 왜 무시하지	역사매니아 (14.46)	2018.08.26	23	5
91982	북센징이 정이 많은 나라는 아니지 [1]	역사매니아 (14.46)	2018.08.26	33	3
91981	일본은 자원까지 많은 나라였으면 진짜 역대급이었을듯	역사매니아 (14.46)	2018.08.26	21	1
91980	솔직히 일본문화는 백인우월주의자들까지 몰래 즐기고 은근히 즐길듯	역사매니아 (14.46)	2018.08.26	22	3
91979	일제라면 환장하는 북센새끼들.	역사매니아 (14.46)	2018.08.26	27	4
91978	미스터 센샤인 왜 이완용이 친일파 된 이유는 [1]	ㄷㄷ (39.7)	2018.08.26	62	12
91977	아시아에 유일한 인류는 일본인 뿐이다	ㅇㅇ (125.142)	2018.08.26	38	3
91976	조센 왕조 숭배하는 놈들은 조센이 근대 서양보다 발달했다고 하더라	ㄱㄱ (211.202)	2018.08.26	29	5
91975	근꺽이 그나마 추장 중 전두환을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	ㅇㅇ (72.35)	2018.08.26	28	1
91974	반일 역사 카페 애들의 정체는 공산당들이다 [2]	ㄱㄱ (211.202)	2018.08.26	46	6
91973	미스터 센샤인 존나 웃기네 ㅋㅋㅋ	ㄷㄷ (39.7)	2018.08.26	51	12
91972	조센징의 습성 중 가장 끔찍한 그것... [5]	ㅇㅇㅇ (209.234)	2018.08.26	199	19
91971	대만 TSMC 우여곡절이 많은 회사였네	헬한민국	2018.08.26	48	5
91970	텐지텐노가 신라 공격해서 멸망시켰어야.	미카엘05	2018.08.26	58	0
91969	대만 TSMC, 2020년까지 아이폰용 칩 독점 공급 [1]	헬한민국	2018.08.26	131	9
91968	한국 문화를 너무 사랑하는 서양인들 [1]	코리아? (221.146)	2018.08.26	240	14
91967	애는 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냐 [2]	헬한민국	2018.08.26	180	7
91966	존 매케인 사망했네 [1]	ㅇㅇ (59.24)	2018.08.26	155	11
91965	조센징은 조센징으로 환생한다 - 불교적 관점 2번째 [3]	ㅇㅇ (182.219)	2018.08.26	134	8
91964	예멘난민은 병신들임? 갈곳이 그리 없냐 ㅋㅋㅋ [2]	ㅇㅇ (112.148)	2018.08.26	104	11
91963	왕왕 툼딱 올려치기 하는 근꺽러 있는데 [2]	dd (182.219)	2018.08.26	86	5
91962	포트나이트 사무라이 스킨 나왔네	ㅇㅇ (58.232)	2018.08.26	103	11
91961	와 한남총들 징병노예 자적자 합병폭발 역대최대 모니터 뚫고 폭발할듯 [2]	ㅇㅇ (95.130)	2018.08.26	139	5
91960	ㄱㄷ 지이 일본문화 받아들이게 imf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2]	ㅇㅇ (175.223)	2018.08.26	129	1
91959	이 자같은 동네 자같은 점 몇개 꼽아보자면...	ㅇㅇ (218.53)	2018.08.26	114	7
91958	생각해보니 조센은 노인복지가 필요없지않냐 [2]	ㅇㅇ (61.101)	2018.08.26	102	4
91957	한국남자가 병역의 의무가 없었던 유일한 기간 '일제 은혜기'	ㅇㅇㅇ (218.145)	2018.08.26	58	8
91956	좌쑈 우쑈 좆같은 씹새끼들 특징.txt	실증주의 (39.7)	2018.08.26	122	5

개념글 [프로듀스48]

- 일본인만 안껴있어도 가능하
- 일본 데뷔조 투표결과...이게
- 김민주 공항 투샷.gif
- 개념) 장원영 공항 움짤
- 애도 존나 못생겼어 진짜.jpg

뉴스



박지원 "김정은, 트럼프에 핵

실시간 검색어

종합

시사

연예

- 1

문성민
- 2

정혜림
- 3

라붐
- 4

나희원 프로
- 5

ufc
- 6

시간
- 7

김자영
- 8

노라조
- 9

여자
- 10

슈퍼

날씨

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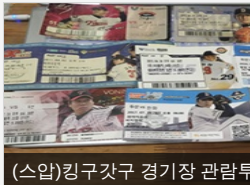
제공 Daum

디시위키

영어 관용구

영어 속어(관용구)를 다룬 문서
지역에서 살고 싶거나 좋은 영어
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꿈많은 학
에게 이 문서를 바친다.

Hits



(스압)킹구갓구 경기장 관람투

초개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91955	 이제는 일본 드라마도 우습게 보는 센징들	ㄱ ㄱ (211.202)	2018.08.26	117	8
91954	 분회의에서 몸싸움...폭행죄로 의장 검찰에 고소 기사입력 2018	ㅇ ㅇ (171.25)	2018.08.26	42	4
91953	 탈원전 하지말았어야 되는거였다ㅠ ㅠ	ㄷ ㄷ (112.165)	2018.08.26	48	0
91952	 조센징 스스로가 젓고리를 인정하는 만화를 발견했다 ㅋㅋㅋ	2441 (1.236)	2018.08.26	124	14
91951	 보통의 국가는 부동산 버블을 가끔 붕괴시켜서 사회를 유지하는데	ㅇ ㅇ (182.219)	2018.08.26	106	9
91950	 이새끼 근갤러 맞나? [2]	ㅇ ㅇ (159.65)	2018.08.26	192	5
 전체목록	 개념글 짜 하드웨어가 깡패라서;	헬한민국 	2018.08.25	 글쓰기	
91948	 위장협한중 가장 잘 걸러내야하는 가장 악적이고 기생충 위장협한은	ㅇ ㅇ (121.144)	2018.08.25	72	4
91947	 한국인들 머리가 좋은것아니고 [2] 1 2 3 4 5 6 7 8 9 10 다음 > 맨뒤 >>	ㅇ ㅇ (223.62)	2018.08.25	109	6
전체 ▼ 검색					


라이프
데미같은 선우 데... 안쓰러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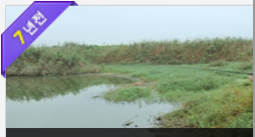
· [명갤] 친구네 꼴통시바견 짬뽕

· [기음] 오늘 마당에서 고기먹은

· [낙갤] 삼교천 갖다옴..

· [카연] [짐승친구들] 37화 - 홍

그 때 그 HIT



[휴가조행] Summer vacation in 1
작성일 2011-08-26

오늘의 이슈

숨바꼭질

김부선

은혜로교회

윤도현

 **디시인사이드 모바일**
모바일에서도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소개**
인터넷 커뮤니티 세상

 **신고하기**
갤러리 클린 캠페인

음식	주류	양식	취미	토이	인형	생활	ROOM	역학	스포츠	헬스	해외
	과자,빵	면식		도서	낙시		로또	고민		국내야구	롯데
	차,음료	치킨		판타지	등산		다이어리	토토		SK 와이번스	LG 트
	피자	패스트푸드		무협	만화		다이어트	연애상담		두산 베어스	한화
	롯데리아	맥도날드		애니-일본	애니-미국		좌절	신용카드		KIA 타이거즈	삼성
	편의점	기타		연극,뮤지컬	인터넷방송		아웃사이더	미스터리		넥센 히어로즈	NC 드